

한국, 미·중·일 무역수지 급속 악화

1분기 對美 흑자 17억달러... 작년보다 34% ↓

對日 적자 폭은 83억달러... 전년보다 14% ↑

EU·동구권만 흑자 규모 큰폭 증가

한국의 무역수지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에 대한 수출은 110억7천900만 달러였고 수입은 93억4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7억3천8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34.1% 감소한 규모다.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2004년 140억7천만 달러를 정점으로 2005년 107억6천만 달러, 2006년 95억3천만 달러, 2007년 85억4천700만 달러 등으로 계속 줄어 들고 있다. 특히 올해 1·4분기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침체로 수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2.8% 감소했지만 상승한 환율 등으로 인해 수입은 6.6%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일본에 대한 수출은 70억8천600만 달러, 수입은 153억9천300

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83억7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4분기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1% 늘어났다. 대일 무역적자는 2005년 243억7천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이후 2006년 253억9천200만 달러, 2007년 298억8천만 달러로 2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4분기의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도 최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대일 무역적자의 심화 현상은 기술·부품·소재 등에 대한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4분기 중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각각 220억5천800만 달러와 179억5천800만 달러였고 무역수지 흑자는 41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7% 감소

했다. 대중 무역흑자는 2005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2006년 209억300만 달러 감소한 뒤 2007년에도 189억5천7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중국이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중국의 환경·노동규제 강화로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이들에 대한 소재·부품 공급(수출)이 줄어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EU)과 동구권, 독립국가연합(CIS)에 대한 무역흑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고 있다.

올해 1·4분기 EU에 대한 무역흑자는 50억1천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0%, 동구권에 대한 무역흑자는 26억3천400만 달러로 32.6%, CIS에 대한 무역흑자는 10억4천700만 달러로 121.4% 각각 증가했다.

이 대통령-재계 ‘투자 확대’ 머리 맞댄다

28일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단체·中企 대표 초청 활성화 논의

이명박 대통령과 재계 지도자들이 지식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전경련 회장단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당선자 신분으로 전경련을 방문했던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4개월 만이다.

이 회동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을 이루고 있는 재벌 총수 대부분과 지식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인 손경식 대한상공

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협감 발행과 관련한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최근 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참석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그룹별 투자계획을 밝히고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와 정부의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성장잠재력이 크지만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지식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참석 기업인들에게 밤, 방일 성과를 설명하고 양국 방문시 수행한 경제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중부세 합산 과세 위헌 아니다”

재정부, 쟁점별 법리 검토 마쳐... 憲裁 결정 관심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합헌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 중부세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비해 각 쟁점별 위헌성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 받았다.

최근 행정법원의 위헌 제정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중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 조항은 가구별로 합산을 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는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들은 혼인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특히 헌법재판소

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제도를 이미 위헌이라고 판시했으므로 중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도 위헌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위헌 판결은 차별적 세부담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인지에 따라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별취급의 합리적 근거를 판단하려면 차별취급을 하는 목적이 정당인지(목적의 정당성), 방법이 적절인지(방법의 적정성),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한지(합의의 비례 원칙) 등을 심사에 결정해야 하는데, 중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에 속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중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결혼한 자녀 세대원이 있는 주택의 보유자를 독신 생활자보다 불리하게 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LG전자 ‘와인폰’ 출시

능 버튼을 한글로 표시하는 등 중장년 세대의 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LG전자는 내부와 외부 LCD 화면을 각각 6.1cm와 4.5cm로 넓히고, 메뉴를 간편하게 구성한 ‘와인폰’ 신모델을 이동통신 3사를 통해 21일 출시한다. 가격이 30만원대인 와인폰은 기능 버튼을 한글로 표시하는 등 중장년 세대의 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연합뉴스

삼성·하이닉스 50나노급 D램 양산

한국 ‘반도체 강국’ 또 과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해외 경쟁사들을 제치고 나란히 50나노급 D램 양산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파워를 전세계에 과시한다.

20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56나노 공정을 적용한 D램 양산을 시작했으며 하이닉스도 내달 54나노 D램을 양산할 계획이다.

이달 초부터 양산에 들어간 삼성전자의 56나노 제품은 기존 60나노급 제품에 비해 생산성은 50% 이상 향상됐고 제품의 전력 소비는 30% 절감된 효과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첨단 기술인 6F스퀘어 공법을 적용해 지금까지 개발된 50나노 D램 제품 중 세계 최소형이며, 삼성전자의 독자 기술인 3차원 셀 트랜지스터 기술이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2006년 10월 50나노급 D

램으로는 업계 최초로 56나노 D램 개발에 성공했으며 작년 7월 인텔 인증을 획득했다.

하이닉스도 최근 54나노 D램 양산에 필요한 수율을 확보해 현재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

하이닉스는 작년 11월 54나노 공정 기술을 적용한 1Gb DDR2 D램 개발을 마치고 인텔 인증을 획득했다.

하이닉스의 54나노 D램 공정은 현재 양산 중인 66나노에 비해 50% 이상 생산성이 높고, 이 기술을 적용한 1Gb DDR2 D램의 처리 속도는 DDR2 제품 중 가장 빠른 초당 800Mb다.

하이닉스는 “본격적인 양산은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량 생산에 필요한 수율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국 증시 영향력은? 미국株나 중국株나

연초 중국 증시 영향권, 하반기 美 증시와 동조화 가능성

‘미국 증시를 따라갈까 아니면 중국 증시의 영향권에 들어갈까’

올들어 대외 악재로 인해 부진한 흐름을 보여온 국내 증시가 최근 급속하게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미국 증시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 가운데 향후 어느 쪽 증시의 영향을 더 받을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美 증시는 안정세 회복 - 中증시는 당분간 불안한 흐름 이어질 듯 =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글로벌 증시 부진의 진앙인 미국 증시는 최근 실적시즌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증시는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

오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경제성장률과 기업이익이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中·美 증시와 상관관계는 ‘비슷’... 국내 증시 美증시쪽으로 기울 듯 = 이런 가운데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한국의 코스피지수와 미국 다우지수,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코스피는 다우지수와 0.50, 상하이종합지수와 0.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는 -1과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조화(커플

링) 현상이 강하다는 의미하는 만큼

올 들어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 증시의 영향을 골고루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증권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국내증시가 미국 증시와 동조화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 관련주가 다소 추축한 사이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술(IT)주와 자동차주 등이 환율상승 등의 도움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고 이들은 설명했다.

황창홍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센터장은 “올해 글로벌 금리상승의 원인이 미국이었다면 만큼 당분간 국내 증시가 미국증시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나가면 평평 쓰나’

한국, GDP대비 관광수지 적자 세계 4위

지난해 101억달러 외환위기 이후 60배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광수지 적자 비중이 세계 4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한국의 관광수지 적자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 비중은 GDP의 0.71% 수준으로 2006년 기준 세계 경제 순위 10위 이상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4번째로 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는 지난해 기준 101억 달러로 외환위기 이후 2001년 1억7천만 달러에서 6년만에 60배나 증가했다.

GDP 대비 관광수지 적자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독일로 1.48%에 달했으며, 영국이 1.19%, 러시아가 1.07%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그러나 독일과 영국의 경우 유럽연합(EU)에 속해 있어 해외관광에 따른 지출이 국내 경제에 재유입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가 갈수록 확대되는 원인은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와 외래관광객 유치 미흡 ▲국내관광의 경쟁력 대비 취약한 가격경쟁력과 상품다양성 ▲쇼핑, 안전, 환경 관련 인프라와 여행, 관광에 대한 범국민적 친근성 미비 등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옥션 해킹 사고... 금융정보 유출 불안

“통장 비밀번호 바꾸세요”

지난 2월초 발생한 오픈마켓 옥션의 해킹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 중 은행 계좌번호 등 거래정보가 포함된 사례가 100만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은행 계좌번호가 유출된 일부 회원들의 경우 불안한 마음에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업계에서는 계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은 이상 계좌번호 유출만으로 은행 계좌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일에 대비해 비밀번호를 바꿀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객의 실명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옥션의 해킹 피해 규모가 알려진 이후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번호가 유출된 계좌를 해지했거나 하겠다는 글이 잇따랐다.

그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가 모두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바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굳이 계좌를 해지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은행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대포차’ 신고 안하면 처벌

내년부터 불법 자동차인 ‘대포차’를 소유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대포차를 판 사람에게만 제재를 가했지만 이제는 대포차를 사는 사람까지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 과태료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28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 3 4 6 14 41	12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554,683,200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2,018,465	37
3 5개 숫자 일치	1,042,712	1,491
4 4개 숫자 일치	41,713	74,543
5 3개 숫자 일치	5,000	970,685

팝콘복권 (제104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3조 500477
2	1억	2조 497866
3	1천만	3조 921712
4	1백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5	50만	각조 2155
		각조 08
6	2천	각조 65
		각조 01
		각조 1
7	1천	각조 6
		각조 9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선후테크	제조업 기능직 정규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4/21	062-956-3239
대령테크	[사무직/판매직]정규직 남녀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1	062-606-8802
호남축판	생산직 사원 및 영업담당 사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4/21	062-419-8171
그린텔	한국전력 광주센터 정규파트타임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1	042-223-4900
오토하우스	[자동차용품전문할인점]인테리어 기사 사원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1	062-362-7288
프리머스메이저(주)	[주5일] 신항과 고객만족센터/채권상담 동시채용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22	062-383-1756
윌드넷	KT 홍보.영업사원/경리,사무관리/월드 휘트니스클럽 직원	고졸/경력2년	1800~2000	04/22	062-511-1029
LG이노텍	수출입통과(물류관리)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4/23	062-950-0458
스틸하이테크(주)	정규직 경리/사무관리 여사원 모집	고졸/경력2년	1600~1800	04/23	062-944-3771
남영건설	08년 남영건설 상반기 신입/경력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4	062-3600-781
현대산업아이에스	정규직 산업디자인 경력 직원 모집	고졸/경력2년	1400~1600	04/24	061-792-1900
한국특수가스(주)광주지점	배송, 납품 운전직원을 모집합니다.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24	062-954-3355
그린텔	KTF 광주웹서비스센터 정규직 상담사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5	042-223-4900
다산	기계설계 차장급 경력직 모집	초대졸/경력7년	3200~3400	04/30	062-953-740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